



지미프렌즈 60주년
GOOD FRIEND OF SAFETY

와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II

Shostakovich

“Symphony No. 5”

지휘 — 함신익

피아노 — 김규연



©Kyutai Shim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2026

05. 30. Sat

19:30



LOTTE
CONCERT HALL
롯데콘서트홀

티켓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LOTTE
CONCERT HALL

YES24 NOL ticket

후원 하나은행

NOROO

PONGSAN

TSE

FST

SEBONG

면사당 (주)면사당

화광교역(주)

SeAH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스모스악기 COSMOS CORPORATION



SYMPHONY
SONG
SHINIK HAM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한수향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6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3억 원 이상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1억 원 이상

말러 Circle 5,000만 원 이상
티에스이
에프에스티
풍산
세봉

브람스 Circle 3,000만 원 이상
지에프에스

브루크너 Circle 2,000만 원 이상
면사랑

슈베르트 Circle 1,000만 원 이상
윤정웅
세아제강
신승일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500만 원 이상
디에스케이
곽진오
장원기

쇼팽 Circle 300만 원 이상
송백규
문형주
안정근
이경혜

모차르트 Circle 100만 원 이상
코스모엠
김기태
계양수치과
이근혁
신갑순
한수향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전흥구
이속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응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심남영
홍정표
황여진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 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랑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Prokofiev & Shostakovich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Festive Overture in A Major, Op. 96

축전 서곡 가장조, 작품번호 96



Sergei Prokofiev (1891-1953)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Op. 16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사단조, 작품번호 16

- I. Andantino – Allegretto 조금 느리게 - 조금 빠르게
- II. Scherzo: Vivace 아주 빠르고 활발하게
- III. Intermezzo: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 IV. Finale: Allegro tempestoso 매우 빠르고 강렬하게

피아노 김규연

[Intermission]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Symphony No. 5 in D minor, Op. 47

교향곡 제5번 라단조, 작품번호 47

- I. Moderato 보통 빠르기로
- I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 III. Largo 아주 느리게
- IV. Allegro non troppo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악장 송지원

바이올린 박진형 강은실 오하은 고지우 김문정
김민주 김민지 김영은 박지윤 백은유
신서니 유희원 이다현 이수민 이유빈
이지현 임예지 장민주 정예린 정예은
조아라 조희운 최지원 한소영 홍현

비올라 서예슬 김효경 서예진 송수민 이선아
임우진 장윤정 정채운 최신애 한지윤

첼로 황윤정 구채린 권서진 권혜림 김예은
남예은 우아람 이한효 정다인 조아진

더블베이스 김효선 강주형 박준건 이예은 이현성
장유리 진소윤 한지혜

플룻 김성찬 김보경 유제은

피콜로 김보경

오보에 김소정 김우영 이원재

잉글리쉬 호른 김우영

클라리넷 고태원 이나원 조성용

E♭ 클라리넷 이나원

바순 김윤지 고경호 오승은

콘트라 바순 오승은

호른 조종현 김효정 김보람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김주성

트럼본 이윤호 김재원 김지섭

튜바 김지은

하프 김경화

팀파니 이종일

타악기 승병록 오정민 유요한 정주환

피아노 이동하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김시진 김재묵 유소정 이수민
정혜원 진연수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 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바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킹'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킹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 2026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지휘자 함신익

피아노 — 김규연



©Kyu-tai Shim

PIANO
Kyu Yeon Kim

Q. 수많은 오케스트라 중 '심포니 송'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나 유대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심포니 송'과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찬 음악가들이 모여 있다는 점 자체가 만드는 에너지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는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대로 음악에 담긴다는 점이 가장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Q. 연주자로서 이 곡이 가진 '가장 극적인 순간 (Climax)'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며, 그 순간 어떤 감각을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이 곡은 겉으로 드러나는 극단적인 에너지 이면에 미묘하고 뒤틀린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대한 카덴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후의 공허한 여백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죠. 인생에서 느끼는 클라이맥스의 지점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이 곡의 클라이맥스도 듣는 사람의 상태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이 가진 여러 층위의 긴장 안에서 여러분만의 '절정'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Q. 이 곡을 처음 접했던 시기와,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곡을 바라보는 해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이 곡의 화려한 패시지와 기술적 성취에 매료되었다면, 지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 뒤틀린 감정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냉소와 긴장이 공존하는 프로코피예프만의 미묘한 감각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죽음'이라는 배경 아래, 이 곡의 에너지는 단순한 애도를 넘어 슬픔과 분노, 공허함이 뒤섞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감정을 비틀어 표현하는 듯한 과장된 몸짓이나 기계적인 몰아침이 때로는 섬뜩한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협주곡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상실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곡을 연주하는 일은 제게 더 깊은 숙제이자 매혹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 공연이 끝난 뒤,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잔상이 남기를 기대하시나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어떤'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 연주를 보고 들으시는 지금 관객 여러분 각자의 감정과 상황으로 이 곡을 온전하게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연주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서울스프링실내악 축제에 참여 중이며, 여름에는 김상진 선생님과 듀오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페스티벌에서 챔버 연주와 협주곡 협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호아트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 타이페이 챔버 뮤직 페스티벌, 서울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오릅니다. 또한, 대전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거쳐, 12월에는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독주회가 있습니다.

PROFILE

- 더블린 국제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 콩쿨 등 입상
- 지나 박하우어 영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교향악단, 뉴월드 심포니,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다수 협연
- 난파음악상, 신한음악상, 운파상, 한국음악협회 신인대상 수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커티스음악원 디플로마,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클리블랜드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맨하탄 음대 박사학위 취득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Young Classical Artists Foundation의 음악감독, 프레스토컴퍼니 소속 아티스트

Festive Overture in A Major, Op. 96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가장조, 작품번호 96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음악 세계는 대개 무거운 시대적 비극과 내면의 깊은 고뇌를 투영하고 있으나, 1954년 발표된 <축전 서곡>은 그의 작품 목록 중 보기 드물게 밝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걸작이다. 이 곡은 1954년 10월 혁명 37주년 기념 연주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볼쇼이 극장으로부터 급히 의뢰받아 작곡되었다.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별도의 스케치나 구상 단계 없이 단 3일 만에 이 화려한 관현악곡을 완성해 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금관악기의 찬란한 팡파르로 시작된 곡은 이내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빠른 질주로 이어지며 축제의 생동감을 극대화한다. 중반부 첼로와 호른의 서정적인 선율이 풍성함을 더한 뒤, 음악은 다시 에너지를 고조시켜 종결부에 이른다. 마지막은 도입부의 팡파르가 한층 장엄하게 재현되며 모든 악기의 압도적인 울림 속에 환희의 정점을 찍는다.

러시아 국민악파의 거장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이 가진 질주감과 화려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 작품은, 특유의 명료한 화성과 낙천적인 분위기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사랑받는 오프닝 레퍼토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While Shostakovich's music often reflects tragedy and inner agony, his Festive Overture (1954) is a rare masterpiece of vibrant energy. Commissioned by the Bolshoi Theatre for the 37th anniversary of the October Revolution, it was written on extremely short notice just days before the concert.

Remarkably, Shostakovich completed this brilliant work in just three days without any prior sketches. The piece opens with a resplendent brass fanfare, followed by a rapid sprint of strings and woodwinds that maximizes its festive spirit. After a lyrical middle section featuring cellos and horns, the energy builds toward a majestic return of the opening fanfare, ending in a pinnacle of orchestral joy.

Inheriting the brilliant tradition of Glinka's Ruslan and Lyudmila Overture, this work has become a world-renowned opening repertoire. Its clear harmonies and optimistic atmosphere make it the perfect choice to signal the beginning of a performance.

Sergei Prokofiev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Op. 16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사단조, 작품번호 16

이 곡은 협주곡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난해하며, 연주자에게 한계를 시험하는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1913년 초연 당시, 청중들은 이 곡의 야만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거친 타악기적 피아니즘과 기괴한 화성에 충격을 받아 야유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본래 이 곡은 작곡가의 요절한 친구 맥시밀리안 슈미트호프를 추모하며 헌정되었으나, 러시아 혁명기 중 화재로 악보가 전소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후 1923년, 작곡가가 기억을 복원하여 재구성한 현재의 판본은 원곡의 거친 야생성에 치밀한 구조미와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1악장은 몽환적인 주제로 시작하여 거대한 피아노 독주 카덴차에서 광기 어린 폭발을 보여준다. 심 없이 질주하는 2악장 스케르초, 무겁고 기괴한 행진곡풍의 3악장 인터메조를 지나, 4악장 피날레는 청중을 압도하는 에너지와 서정적인 주제가 대조를 이루며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This work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adical and challenging in concerto history, demanding transcendental virtuosity that pushes performers to their limits. At its 1913 premiere, audiences were reportedly so shocked by its barbaric energy, percussive pianism, and grotesque harmonies that they reacted with boos. Originally dedicated to the memory of the composer's late friend, Maximilian Schmidthof, the score was tragically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Russian Revolution.

In 1923, the composer reconstructed the work from memory. The current version enhances the original's raw wildness with sophisticated structural beauty and musical depth.

The first movement opens with a dreamy theme before reaching a frenzied explosion in a massive solo cadenza. After the relentless scherzo of the second movement and the heavy, bizarre march of the third-movement Intermezzo, the finale brings the work to a grand close, contrasting overwhelming power with lyrical beauty.



1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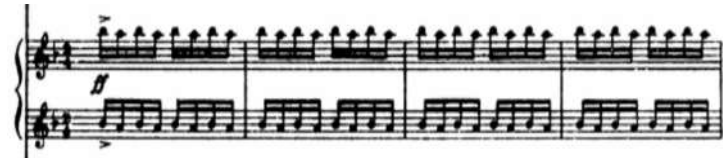
Andantino – Allegretto



몽환적인 오케스트라의 도입부에 이어 피아노가 신비롭고 서정적인 주제를 나직이 제시하며 문을 연다. 서서히 고조되는 긴장감은 악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독주 피아노의 거대한 카덴차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 카덴차는 단순한 기교의 과시를 넘어, 광기 어린 폭발과 압도적인 음향의 층을 쌓아 올리며 피아니스트의 한계를 시험함과 동시에 청중을 강력한 몰입감 속으로 몰아넣는다.

2악장

Scherzo: Vivace



16분음표의 씬 없는 질주가 특징인 '무궁동(Moto Perpetuo)' 스타일의 짧고 강렬한 악장이다. 피아노의 양손이 옥타브 간격으로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기계적인 정교함과 엄청난 속도감을 선보인다.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미친 듯이 주고받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프로코피에프식 스케르초의 진수를 보여준다.

3악장

Intermezzo: Allegro moderato



'간주곡'이라는 이름과 달리, 저변에는 무겁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악장이다. 마치 거인의 발걸음 같은 육중하고 기괴한 리듬 위에 날카로운 관악기와 피아노의 선율이 엮어진다. 러시아적인 비극미와 현대적인 냉소주의가 절묘하게 교차하며, 청중에게 서늘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독특한 예술적 감흥을 선사한다.

4악장

Finale: Allegro tempestoso



'폭풍우(Tempestoso)'라는 부제에 걸맞게 시작부터 격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도약이 심한 거친 주제와 대조적으로, 중간부에서는 러시아 민요풍의 애수 어린 선율이 등장해 마치 자장가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다시 반전되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치열한 타격음과 포효하는 듯한 금관악기의 사운드스가 한데 어우러지며 압도적인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I. Andantino – Allegretto

The concerto begins with a hauntingly beautiful orchestral introduction, leading into a piano theme that is both mysterious and darkly poetic. As the movement unfolds, the initial lyricism gives way to a growing sense of unease, culminating in a monumental solo piano cadenza that remains one of the most demanding in the entire concerto repertoire. This cadenza is not merely a display of virtuosity but a psychological journey—a volcanic eruption of sound and emotion that pushes the performer to their physical limits. The music builds into a cataclysmic climax before returning to the eerie, hushed tones of the opening, leaving a lingering sense of mystery.

II. Scherzo: Vivace

The second movement is a breathtaking display of 'Moto Perpetuo' (perpetual motion), characterized by an unrelenting stream of 16th-note octaves in the piano. For the duration of this brief but exhilarating movement, the soloist never rests, maintaining a mechanical precision that borders on the superhuman. The orchestra provides a vibrant, rhythmic backdrop, creating a whirlwind of sound that captures Prokofiev's signature "motoric" style. It is a brilliant example of a modern scherzo—witty, sharp, and filled with a frantic, driving energy that leaves the audience breathless.

III. Intermezzo: Allegro moderato

In stark contrast to the preceding movement, the Intermezzo is heavy, brooding, and decidedly grotesque. It is anchored by a ponderous, thumping bassline often likened to the stomp of a giant, over which the piano and wind instruments weave jagged and sardonic melodies. This movement showcases Prokofiev's ability to blend Russian tragic tradition with modern dissonance. The atmosphere is one of dark irony and cold solitude, evoking a sense of looming drama that prepares the listener for the explosive finale.

IV. Finale: Allegro tempestoso

The finale erupts with "tempestuous" fury, reclaiming the barbaric energy that shocked audiences at the work's premiere. The music is driven by wide leaps and aggressive rhythms, yet it finds moments of profound contrast in the middle section, where a haunting, folk-like Russian melody emerges. This lyrical episode provides a brief, almost surreal respite—like an ominous lullaby—before the storm returns. The concerto reaches its zenith in a titanic struggle between the piano and the full orchestra, concluding in a thunderous and triumphant D-minor finish that affirms the work's status as a masterpiece of 20th-century music.

Symphony No. 5 in D minor, Op. 4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라단조, 작품번호 47번



1937년 완성된 교향곡 제5번은 쇼스타코비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상징하는 불멸의 걸작이다. 당시 오페라에 대한 정권의 혹평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던 그는, '비판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라는 명목 아래 이 곡을 발표했다. 초연 당시 관객들로부터 압도적인 찬사를 이끌어낸 이 작품은 그를 다시금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전체 4악장 구성으로 고전적인 교향곡 형식을 충실히 따른다. 제1악장은 비장하고 엄숙한 현악의 문답으로 비극적 긴장감을 자아내며, 제2악장은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스케르초를 선보인다. 정서적 핵심인 제3악장은 관악기를 배제한 채 현악기 위주의 깊고 처절한 선율로 내면의 슬픔을 위로하며, 마지막 제4악장은 강렬한 팀파니와 금관악기의 행진곡으로 시작해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화려한 승리로 결말을 맺는다.

표면적으로는 승리의 서사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과 강요된 환희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숨겨져 있다는 다층적인 해석이 존재한다. 완벽한 조형미와 깊은 서사성을 동시에 갖춘 이 곡은 오늘날 20세기 교향곡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레퍼토리로 평가받는다.



1악장

Moderato - Allegro non troppo

비극적 장엄함과 투쟁의 시작

날카로운 현악기의 카논으로 시작되는 1악장은 전체 교향곡의 거대한 설계를 제시한다. 첫 부분의 엄격하고 긴장감 넘치는 주제와 이어지는 서정적인 제2주제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발전한다. 악장 중반부,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가세하며 행진곡풍으로 변모하는 전개부는 마치 거대한 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오는 듯한 공포를 자아낸다.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고요해지는 분위기는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서늘한 여운을 남긴다.

Completed in 1937, Symphony No. 5 is an immortal masterpiece representing the most dramatic turning point in Shostakovich's career. Faced with a political crisis, he released this work as "A justified response to criticism" Its overwhelming success at the premiere instantly restored his status as a master composer.

The work follows a classical four-movement structure. The first movement builds tragic tension through solemn strings, while the second features a satirical scherzo. The third movement, the emotional core, uses deep string melodies to console inner sorrow. Finally, the fourth movement erupts into a powerful march of brass and timpani, concluding in a grand, triumphant finale.

While appearing to show a narrative of victory, the work is often interpreted as a sharp satire of "forced rejoicing" and the people's suffering. Combining formal beauty with deep narrative, it remai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pertoires of the 20th century.

I. Moderato

Tragic Grandeur and the Dawn of Conflict

The symphony opens with a stern, jagged canon in the strings, immediately establishing an atmosphere of severe tension and architectural vastness. This movement functions as a grand psychological map; the rigid, rhythmic first theme soon meets a contrasting second theme—a wide-ranging, lyrical melody in the first violins that feels like a lonely voice in a desolate landscape. As the development unfolds, the music undergoes a terrifying transformation. The once-lyrical themes are compressed into a rigid, militaristic march, propelled by the brass and snare drum. This section evokes the image of an unstoppable, dehumanized force crushing everything in its path. After reaching a cataclysmic climax, the movement recedes into a ghostly stillness. The final bars, featuring the delicate tinkling of the celesta and a solo violin, leave the listener in a state of uneasy suspense, like the fragile quiet before a storm.

2악장

Allegretto



풍자와 해학의 스케르초

말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악장은 가볍고 유머러스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날카로운 조롱과 냉소가 깔려 있다. 툭툭 끊어지는 듯한 리듬과 목관악기의 익살스러운 선율은 마치 광대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웅장한 1악장과 비극적인 3악장 사이에서 분위기를 환기하면서도, 결코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유지한다.

II. Allegretto

A Scherzo of Satire and Irony

The second movement offers a brief, yet unsettling, respite. Heavily influenced by the "Ländler" dances of Gustav Mahler, this scherzo is far from lighthearted. It is a masterclass in musical irony and biting satire. The orchestration is deliberately crude at times, with the horns and woodwinds playing clumsy, rhythmic patterns that suggest a sense of forced merriment. Shostakovich uses the E-flat clarinet to create shrill, mocking tones, painting the picture of a clown forced to dance and smile under threat. Positioned between the monumental first movement and the devastatingly emotional third, this Allegretto maintains a peculiar tension; it is music that laughs on the outside while harboring a sharp, cynical edge beneath its surface.

3악장

Largo



영혼을 달래는 깊은 슬픔

이 교향곡의 정서적 핵심이자 쇼스타코비치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난 악장이다. 금관악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현악기와 목관악기만으로 구성된 이 악장은 초연 당시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깊은 비극미를 담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가나 장례 음악을 연상시키는 경건하고도 애절한 선율은 당시 숙청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이자, 작곡가 내면의 고독과 고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III. Largo

Profound Sorrow: The Spiritual Heart of the Work

The Largo is the emotional and spiritual core of the symphony, representing Shostakovich's most intimate and sincere expression. In a striking move, the composer completely excludes the brass section, relying solely on the expressive power of the strings and woodwinds. The strings are divided into several layers, creating a rich, choral texture reminiscent of Russian Orthodox liturgical music. At its 1937 premiere, this movement reportedly moved many in the audience to tears, as they recognized it as a wordless requiem for the friends and family lost during the Great Purge. The music rises to a searing peak of grief before fading into a whisper of resignation. It is a profound meditation on loneliness and collective mourning, offering a rare glimpse into the composer's unshielded soul.

4악장

Allegro non troppo



강요된 환희, 혹은 진정한 승리

팀파니의 강렬한 타격과 함께 시작되는 피날레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청중을 몰아붙인다. 금관악기의 포효와 함께 승리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지만, 이 끝없는 '다장조(C Major)'의 반복이 진심 어린 기쁨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강요된 거짓 환호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연주자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진다. 거대한 소리의 물결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허무함과 강박적인 리듬은 이 곡이 단순한 승전가가 아님을 시사하며 강렬하게 마무리된다.

IV. Allegro non troppo

Forced Jubilation and the Ambiguity of Triumph

The finale erupts with thunderous timpani and an aggressive brass theme, signaling a return to the public arena. The movement is a whirlwind of kinetic energy depicting a struggle toward victory, yet the nature of this "triumph" remains a subject of intense historical debate. After a reflective middle section, the music builds toward a massive conclusion in D Major. Rather than a genuine celebration, the final bars—marked by the strings and brass obsessively repeating the note 'A'—suggest to many a "forced rejoicing," a hollow triumph commanded by a higher power. Whether interpreted as a grand finale or a subversive act of defiance, the movement concludes with an overwhelming wall of sound that leaves the audience breathless and deeply moved.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V

GIUSEPPE VERDI

Messa da Requiem, Op. 48

베르디 — 레퀴엠, 작품번호 48

Verdi “Requiem”

지휘 — 함신익

소프라노 —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 김선정

테너 — 김동원

베이스 바리톤 — 사무엘 윤

합창 —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2026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예술의전당 공인인증센터 NOL ticket

후원 하나은행

NOROO

PONGSAN

TSE

FST

SEBONG

면사량 (주) 면사랑

화광교역(주)

S&AH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클라우드파트너스 클라우드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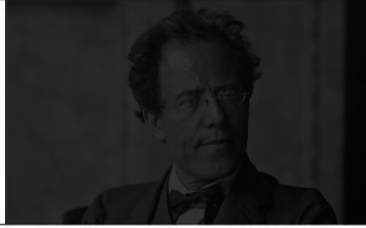
SYMPHONY
SONG
SHINIK HAHM

2026 합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말리의 “부활”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USTAV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이윤정, 김선정,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피아노,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03. 12 THU 19:30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05. 30 SAT 19:30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SERGEI PROKOFIEV
피아노, 김규연 Piano Concerto No. 2

DMITRI SHOSTAKOVICH
Symphony No. 5



베르디 “레퀴엠”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IUSEPPE VERDI
Requiem

오미선, 김선정, 김동원,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피아노, 유성호

MODEST MUSSORGSKY /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무소르그스키와 라벨 “전람회의 그림”

09. 12 SAT 19:30



차이코프스키 스페셜

10. 24 SAT 19:30



PYOT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바이올린, 양정운

PYOTR TCHAIKOVSKY
Symphony No. 4

객원지휘, Darrell 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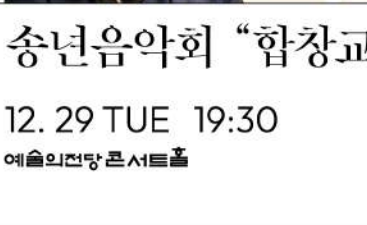
LUDWIG VAN BEETHOVEN
Egmont Overture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유영욱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브람스 페스티벌

11. 16 MON 19:30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 특별할인 시즌패스(정기회원권) 문의 : 02-549-0046, E-mail : management@symphonysong.com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특별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 | | | | |
|--------------------------------------|------|----------|---|----------|
| 6월 15일까지 구매시 | VIP석 | 600,000원 | → | 540,000원 |
| | R석 | 500,000원 | → | 450,000원 |
| | S석 | 350,000원 | → | 315,000원 |
| | A석 | 250,000원 | → | 215,000원 |
| | | 5회 | | |
|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 A석 | 250,000원 | → | 180,000원 |
| | B석 | 150,000원 | → | 90,000원 |
| | | 5회 | | |

티켓 구매 방법

전화 구매 02-549-0046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전화 구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시 즌 패 스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등급 R석 S석 A석

수령 방식 현장수령(추천) 자택 또는 회사 주소 _____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 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 구분 | 연회비 | 예우 및 혜택 | 공통 예우 |
|-------|-------------|--|---|
| 마에스트로 | 3억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
| 마스터즈 | 1억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
| 말리 | 5,0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
| 브람스 | 3,0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 브루크너 | 2,0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 슈베르트 | 1,0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
| 베토벤 | 5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 |
| 쇼팽 | 3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 |
| 모차르트 | 100만 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 |
| 하이든 | 1만 원 이상 | | |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함신의 지휘자 **최신작**
꿈꾸는
지휘자
마에스트로

주문

02-549-0046

함 신 의
자 전 적
에 세 이

꿈 꾸 는
지 휘 자
함 신 의

MAES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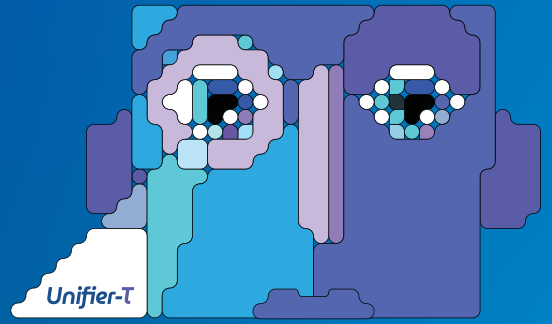
구성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현실을
걱정하는 MZ에게

어느덧 세월을 보낸
진정한 어른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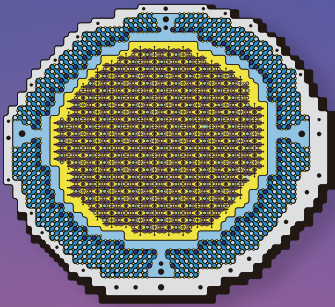
지나간 연주 인생에서 얻은
성찰과 지혜를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i3 uni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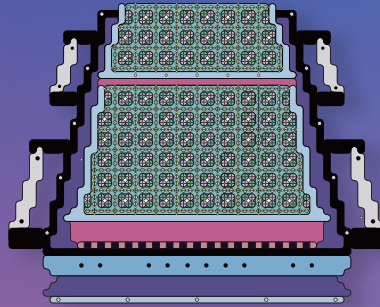


Optimized Advanced **InterconneXion**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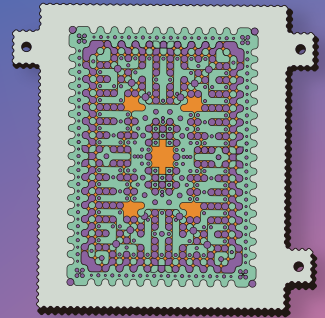
**반도체 테스트의 미래를 혁신하는
티에스이의 통합 솔루션, i3unify!**



Probe Card



Interface Board



Test Socket

TSE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PANAMA GEISHA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콜드브루 커피원액
예가체프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다크 블렌드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디카페인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Elevate Your Business with Seamless System Integration.

차별화된 퍼포먼스 최적화된 시스템통합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 기술을 완성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가능성을 마련합니다.



WEBSITE CREATION AND SYSTEM INTEGRATION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